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회차	43차	일자	2021.10.18 18:30	장소	온라인
----	-----	----	------------------	----	-----

성원점검

간호대학	경영경제대학	사범대학	사회과학대학	약학대학	예술대학	의과대학
○	○	○	○	X	○	X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통일공대	동아리연합회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계
○	X	○	X	○	○	9/13

<개회>

단위별 보고

간호대학	특이사항 없음
경영경제대학	특이사항 없음
사범대학	중간고사 간식사업 진행
사회과학대학	특이사항 없음
약학대학	불참
예술대학	특이사항 없음
의과대학	불참
인문대학	특이사항 없음
자연과학대학	불참
통일공대	특이사항 없음
동아리연합회	불참

보고안건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위원회	산하위원회
확대운영위원회 사유조사 취합 및 속기록 업로드 완료 3분기 간담회(10/29) 준비중 단과대와의 학생자치포럼 관련 준비중 교육자치, 전략정책 비교과 프로그램 공모전(스터디 중앙대 파이터) 진행 중 연대사업 노동자 휴게 공간 전수 조사 진행 중	인복위 21-2학기 의혈지킴이 규찰대 진행 중

사과.부: 네 사회과학대학 질의 있다. 먼저 첫 번째로 인권복지위원회 측에서 권리가이드라인 관련해서 공문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보내주실 예정인지 여쭙고 싶고 두 번째로는 회계사무국에도 여쭙고 싶은 건데 확대운영위원회에서 회의록 증빙서 월별로 업로드 해달라는 요청을 드렸었는데 혹시 이후 논의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다.

총: 네 우선 권리 가이드라인 공문은 확인하고 발송할 수 있도록 하고 확운위 후에 월별 증빙 서류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사과.부: 네 답변 확인했습니다. 그럼 혹시 차후 회의에서 논의하시고 답변 내용 들을 수 있는지?

총: 우선 국.위원장 회의가 이번 주에는 진행되지 않고 다음 주에 진행이 되는데 한번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사과.부: 네 감사하다.

총: 네 질의 더 없으신지?

예술.정: 총학생회장님 다름이 아니라 음악소리 계속 들려서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는지?

총: 네 다른 방법이 없다. 죄송하다. 제가 음소거를 제가 계속 하도록 하겠다.

예술.정: 네 알겠다.

의결안건

1. 국위원회 회의록 공개 의결

총: 그러면 의결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다. 일전에 사과대 회장님께서 국, 위원회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 의결을 진행했으면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의결을 진행을 하도록 하고, 이 의결 안건의 의결을 진행하기 전에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대표자분들이 계신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우선 저부터 말씀을 드리겠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총학생회 국, 위원장단 회의, 이제 중운위를 통해서 충분히 공유가 되고 있고, 학우분께서 질의를 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은 반대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다.

사과.정: 네,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록만큼 속기록 형태로 공유해달라는 의미는 아니다. 중운위 요약본 정도로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만 공유해달라는 의미였고, 그러니까 총학생회에서 학우분들께 충분히 답변을 주신다 하셨는데, 저희 단위에서는 계속 질의가 저희한테 오고 있는 문제가 총학생회에서 sns dm이나 아니면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한 질의에 대답을 잘 안 해 주신다는 의견이 계속 있어서 관련해서 중대 중심에 주기적으로 공유를 해주시면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다.

총: 만약에 cs의 소통 문제라면 cs의 답변의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방법도 있고, 회의록 자체를 요약본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것이 총학생회 집행부의 의견이다. 네,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다. 의결명은 채팅창을 통해 올려드리도록 하겠다. 찬성하시는 대표자분들은 채팅창을 통해 찬성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란다. 네, 반대까지 한꺼번에 올려주시길 바란다. 찬성 3 단위, 반대 4 단위, 기권 2 단위로 부결되었음을 알린다.

논의안건

1. 성평등위원회 후속 조치

- 총학생회 집행부 논의 결과 공유
- 관련 의견 공유
- 기타 논의

총: 논의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다. 논의 안건 1번 성평등위원회의 후속 조치에 대한 내용이다. 총학생회 집행부 논의 결과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다. 우선 세 가지의 사업과 정책을 이관 받아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첫 번째로 정혈용품 지원 사업이다. 정혈용품 지원 사업은 일상복지국에서 이관 받아서 진행할 예정이며, 다른 대여 사업과 동일하게, 대면 학사 운영 전환 시에 다른 대여 사업과 같은 시기에 정혈용품 지원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두 번째로 가다실 9가 제휴사업이다. 현재 연대사업국에서 이관받아서 진행하고 있고, 제휴를 맺은 상도편한내과와 연락을 해서 정상 진행 여부를 확인했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고, 동시에 독감 4가 백신 할인 대유까지 진행을 하는 것으로 상도편한내과와 논의가 되었다. 세 번째로 성폭력 피해 사례 신고 창구

이다. 어떤 신고 창구의 운영 프로세스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국.위원장들의 논의 결과가 있었고 이 운영 프로세스 재정립이 되기 전까지는 피해 사례 신고 창구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 총학생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임시 tf를 구성을 하고 임시 tf에서 신고 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우선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중앙대 학생회칙을 전제로 해서 tf가 운영이 될 것이고 운영 프로세스 재정립 또한 성폭력 회칙에 근거해서 프로세스를 재정립할 예정이다. 현재 총학생회 집행부 내에서 tf 구성을 위해서 준비중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 이에 대한 중운위분들의 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대표자분들은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란다.

예술.정: 예술대 질문이 있다. 이거 지금 성평위가 폐지된 상황인데,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원래 성평위였던 분들이랑은 논의하지 않고 그냥 따로 이렇게 국장이나 집행부끼리만 이걸 이야기하셔서 진행을 하신건지?

총: 네. 우선 현재 존재하고 있는 국.위원장단에서 논의를 했다. 이 세 가지를 뽑은 이유는 현재 총학생회 집행부에 그런 물리적인 행정력을 주된 이유로 이 세 가지 사업만 진행을하기로 결정했다. 이 세 가지 사업과 정책을 진행하기 위해서 성평등위원회의 인수인계를 요청을 하였으나,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인수인계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로 협조를 구해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사과.정: 사과대 의견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는 단운위에서 논의를 요청하셨어서 단운위에서 논의를 한 번 하고 왔다. 잠시만 기다려달라. 정리해준 내용이 있다. 죄송하다. 네, 우선 저희는 기본적으로 단운위의 의견은 성평등위원회의 업무 모두를 총학생회가 인계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었다. 인수인계를 위해서는 먼저 성평등위원회와 이제 대화와 논의를 선행하고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그리고 어떤 업무를 진행해야 하나 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모든 업무를 다 소화하시기에 실무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기존 성평등위원회 업무 중 ‘우리 같이’ 성폭력 피해 신고 창구는 계속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혈용품 사업이나 아니면 가다실 9가처럼 이미 학우들에게 진행하는 것으로 안내가 된 사업도 진행해야 되고 성평등 도서관 등의 상시 사업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공동 구매나 제휴사업 등도 사전에 학우분들께 안내가 된 사업이라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선거운동본부 질의서의 경우에도 매년 학우분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성평등위원회가 주관이 되어서 제작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부분도 총학생회 내에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평등위원회가 단순히 성평등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보호 대책도 마련하고 있었던 기구였어서 성소수자 보호 대책의 경우에도 성평등위원회 폐지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예대 회장님 말씀을 덧붙여서 저희도 우선 총학생회에서 성평등위원회의 사업을 인계를 받아서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실 인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필연적으로 성평위와의 먼저 논의 테이블을 가지시고 소통하시는 게 우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총: 네, 저희도 소통을 하고 싶다. 첫 번째로 인수인계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요청을 드리고 있으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인수 중계가 원활하지 않다. 그래서 당장 필요한 사업인 정혈용품과 가다실 9가 그리고 성폭력 피해 사례 신고 창구인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인계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렸으나, 자꾸 공문으로 보내달라느니 이러한 답변이 오고 있는 중이다. 총학생회 집행부 입장은 공문으로 인수인계를 받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왜냐면 이미 공식적인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문의 형태로 소통을 진행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판단이 있었고, 그렇기에 총학생회의 인스타 계정을 통해서 성평등위원회 인스타의 dm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고 있다. 그런데 공문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총학생회 집행부만의 소통 부족의 문제를 지적하기에는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이 된다. 그리고 질의서의 문제의 경우에는 성평등위원회가 질의서를 선분을 대상으로 질의서를 제작하고 발송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 질의서가 타 단체로 유출이 되고 이러한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된 바 질의서의 형태를 제안서로 다른 형태로 발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위원회가 이걸 받아서 진행을 한다든지에 대한 내용은 현재 집행부 내에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

경경.정: 경경대 말씀드려도 될지? 네, 저희도 단위 논의 결과 정혈용품 대여, 가다실 할인 등과 같이 이전에 진행했던 사업들은 인계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라고 이야기가 나왔다. 또 추가적으로 지금 성평위가 폐지되었는데 중앙대학교라는 이름을 달고 공식적인 단위인 것처럼 인스타 등 sns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 대표자 분께서 말씀 해주셨다.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전달드린다.

총: 계정을 양도해 달라는 총학생회 집행부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평등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던 계정이고, 성폭력 피해 사례 등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양도를 해주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중앙대라는 이름을 빼든지 성평등위원회 이름을 변경을 하든지 이러한 다른 조치들에 대해서는 현재 집행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성평등위원회에 요청을 할 예정이다. 잠깐만 더 말씀드리지만 계정 양도의 문제는 이미 사전에 요청을 한 바가 있고, 성평등위원회가 거절했다는 거, 그렇게 전달해 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공동구매 플랫폼 ‘플레인 플랜티’라는 업체랑 공동 구매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 공동 구매를 원활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플레인 플랜티’ 업체와의 그런 계약서를 확인해 해야한다. 그렇게 계약서를 양도해 주실 것을 요청했으나. 공문의 형태로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계를 해주지 않겠다는 성평등위원회의 답변이 있었다. 그렇게 현재 사업의 이관이 원활하지 못 하다라는 것은 좀 양해를 구하겠다.

사과.정: 이해했다. 현 상황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된 것 같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은 그러니까 공문의 형태를 띄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선적으로 기구가 폐지가 되었고. 어쨌든 총학생회에서 진행을 하시던 사업이었다. 총학생회 성평등위원회였으니까. 그러면 해당 사업 인수인계를 위한 총학생회의 내부적인 방안은 어느 정도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평등위원회 측에서 지속적으로 공문 형태를 요청을 하신다면 sns가 아니라 공문으로 소통을 하는 방식도 있는데 굳이 그 방식을 취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쨌든 저는 임기 내에 해당 업무를 진행하려면. 필연적으로 인수인계가 필요해서 논의 테이블은 우선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궁금하다.

총: 경위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성평등위원회가 폐지되고 성평등위원회 분들이 채팅방을 나갈 때 뭐라고 하셨냐면 인수인계 관련된 거는 개인톡을 통해서 받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에 제가 개인적으로 카카오톡을 이용을 해서 전 성평등위원장께 연락을 드린 바가 있다. 그에 대한 답변은 인수인계 관련 소통은 공식 개정을 통해서 받겠습니다라고 답변이 왔다. 그래서 공식 계정인 성평등위원회 sns인 인스타 계정을 통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또 공문을 달라고 하신다. 이렇게 경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공문들 왜 안 보내고 있냐 라고 물으시면, 사실 공문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용이 되는 것인데 이미 그런 대표성과 정당성을 잃은 단체의 공문의 형태로 소통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 하다라는 판단이 있었고, 전 성평등위원장이 인스타를 통해서 소통을 하라고 해서 소통을 했는데, 왜 또 공문을 보내라고 하는지 저도 사실 잘 이해가 안 된다.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좀 이해를 주시면 감사하겠다.

사과.정: 네.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서 어떤 상황인지는 명확히 이해가 됐다. 다만 sns 계정으로 소통을 해달라거나 아니면 그 메시지로 소통을 해달라거나 이런 말이나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이 상황에 있어서 총학생회와 성평등위원회가 어떤 논의를 진행을 하고, 해당 업무를 필요한 적시에 이제 해결을 하는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현재의 상황을 어쨌든 잘 이렇게 메꿔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처럼 양측의 갈등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사실 전혀 임기 내에 아무런 사업도 진행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저는 공문이 상대 단체가 공식적인 단체일 때만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보내는 단체가 공식적인 단체일 때도 발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제 총학생회가 아무래도 공식적인 단체이다 보니까 성평등위원회와 잘 이야기를 하셔서 공문 등의 형태로 한번 소통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아무래도 중운위 내부에서만 논의를 하는 것은 좀 효과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총: 제안서를 보낸다든지 다른 형태의 방식으로도 소통을 하고자 집행부 내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 원활하게 인수인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총학생회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대표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겠다.

인문.정: 인문대학 말씀드리면, 인문대학도 앞선 대표자분들께서 하신 말을 또 반복하는 것 같지만 저희 단위의 의견을 전달해드리면, 일단은 성폭력 피해 신고 창구 경우에 있어서는 현재 총학생회의 집행부가 매뉴얼을 정립해서 진행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존재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해당 부분은 아까 총학생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성평등위원회와 잘 논의와 대화를 통해서 하루빨리 사업이 지속되도록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인문대학의 바람이 있다. 그 다음에 인문대학은 일단은 성평등위원회가 현재 폐지된 건 사실인데, 그 폐지된 이후에 지금 학내 소수자의 인권이나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대응하는 전문적인 기구가 현재 중앙대학교에 전무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뭔가 협의나 어떤 논의의 테이블이 필요하다는 것이 현재 인문대학의 생각이다.

총: 네, 우선 다들 하시겠지만 성평등위원회 폐지 확정에 따른 국으로의 조정권도 부결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성평등위원회가 관할하고 있던 그런 권리들에 대해서 어떤 국을 신설한다든지 위원회를 신설한다든지에 대한 그런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또 현재 다른 분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부 내에서도 좀 여유가 있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위원회나 국에서 이관받아서 진행을 하고자 하고, 그런 공백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사과:정: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총학생회와 성평등위원회가 계속 대척 구도로 가게 되면 이 성평등위원회를 필요로 하는 학우들에게는 계속 공백 기간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대표자 회의에서 기구의 존폐를 결정함으로써 성평위가 없어지긴 했지만, 연서명도 그렇고 의결도 그렇고 굉장히 빠른 기간 내에 그러니까 단기간 내에 진행이 됐고 줄속으로 폐지가 된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그러니까 이 성평등위원회 폐지에 대비하지 못하셨던 학우분들에게 이 공백 기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걸 메꾸는 역할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 관점에서 보자면, 사실 총학생회의 총 책임자는 이제 총학생회장단이시고 성평등위원회가 했던 사업도 계속 총학생회의 산하의 기구라고 말씀하셨던만큼 총학생회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폐지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자면 공문 정도는 타협점으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의견에서 공문 정도는 발행을 해서 논의를 해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의견을 드린 것이고, 이거는 사실 제가 위원으로서 할 의사는 충분히 전달한 것 같고 나머지는 총학생회와 총학생회장단에서 결정을 하셔도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

부총: 네, 일단 소통 방법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는 더 해보겠다. 해보겠는데 이제 성평위의 폐지 그 과정이나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폐지가 된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화 논의 저희가 계속 시도했다. 시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상대방도 말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인수인계를 부탁을 하는데, 인수인계 용의가 있는지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 상황에서 공문이라는 절차를 바로 진행하기에는 저희도 고민해야 할 점이 많다는 거 정도만 알려드리고, 아무튼 저희도 가능한 통로로 계속 사업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집행부가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저희가 아니라는 점만 다시 거론을 하겠다.

사과:정: 네, 말씀해주신 상황 이해했다.

총: 성평등위원회 후속 조치에 대한 의견 있으신 대표자분들은 말씀해 주시길 바란다.

예술:정: 네, 저희도 단운위에서 의견이 좀 있었는데, 지금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기존에 성평위가 반성폭력과 성평등 문화의 확산을 위해서 뭔가 인식 전환과 문화 조성을 위해서 하던 좀 전반적인 사업도 같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뭔가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 사후 처리 위한 이런 지금의 사업들을 반대하는 게 전혀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로 뭔가 인식 전환과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도 논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뭔가 이렇게 되게 지금 축소되거나 축소되어 보이는 그런 여러 사업들이 좀 그래도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총: 의견 감사하다. 더 추가 의견 있으신 대표자분들 계신지?

사과:정: 사과대 아까 업무 중에 어떤 업무를 지속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의견만 드렸었는데 업무 분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다. 그런데 남은 임기 기간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분배하실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성인지 감수성이 필요한 사업들인 만큼 총학생회 내에서도 담당 인원을 선정할 때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기구에 맞추어 업무를 놔두기보다는 성평등 주체와 같이 성평등 업무를 담당할 만한 인원을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이었고, 네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이었다. 다른 의견도 있었는데 그거는 총학생회에서 이미 내부 논의 결과로 말씀해 주신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라서 생략하도록 하겠다.

총: 네, 추가 의견이 있으신 대표자분들을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없으신 걸로 하고. 혹시나 다른 대표자분이나 학우분께서 총학생회나 전 성평등위원회 간의 그런 소통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저한테 말씀해주시면, 제가 사실에 입각해서 말씀해드리도록 하겠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체제 전환

- 선거일정 확정 *참고자료
- 기타 논의

총: 다음 논의 안건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체제의 전환이다. 선거 일정은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된다. 기본적으로 작년에 진행했던 일정을 그대로 참고해서 작성을 한 건데, 변동된 것은 후보 추천서 등록 및 수령 시간을 9시에서 10시로 되었다. 아침에도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서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미뤄서 시간을 잡았고, 다른 특별한 특이 사항은 없다. 혹시 일정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말씀해주시길 바란다.

인문.정: 인문대학 궁금한 점이 있는데, 추천서 관련해서 질의가 있다. 기간에 대해서 일정에 대해서는 인문대학은 별도의 질의는 없고, 작년에는 추천서를 이제 각 단과대 회장들이 직접 서명해서 제출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서면이라고 나왔는데 온라인 서명도 가능하군요 죄송하다. 그러면 이거 질문은 철회하겠다. 혹시 룰 미팅과 선관위 회의는 이번에 대면으로 진행되는지 그게 궁금했다.

총: 룰 미팅은 기본적으로 대면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중선관위 회의는 코로나 확산 추이나.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나 방역 지침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 다만 기본적으로 중선관위 업무는 신중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면으로 진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 중선관위 체제로 전환되기 전에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도 중운위분들께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다.

인문.정: 인문대학도 총학생회장님과 똑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네 알겠다.

총: 우선 일정을 확정을 해주시고, 우선 10월 26일은 화요일이다. 10월 25일 월요일에 중앙운영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체제로 전환을 하고 진행을 했으면 한다. 그리고 다음 주에 회의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주 회의를 진행을 해야 되겠다. 다음 주 회의 때 선거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아카이빙하고 중운위분들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다.

통공.정: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거 총 선거할 때 단과대 선거도 같이 진행하는지?

총: 다 같이 진행을 한다. 근데 이 문제는 작년에는 이 문제가 같이 진행하지 않고 이번에도 같이 진행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거 맞는지?

인문.정: 저희 유권자 해석이 총학생회랑 달라서 저희는 따로 진행을 해야 한다.

총: 기본적으로 전자 업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총학생회 선거와 동일하게 진행을 해야 하고, 우리 대표자분들도 단과대 선거관리위원장이나 부선거관리위원장이신거 아닌지? 투표율 확보를 위해서라도 총학생회 선거와 함께하면 원활한 선거가 진행이 된다.

통공.정: 근데 그러면 단과대 말고 학부, 학과 선거도 같이 하는 건지?

총: 학부, 학과도 선거의 명부를 전달받아서 한꺼번에 진행을 하고, 반이나 전공으로 분리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다 하는데, 선거인 명부가 확보가 되면 같이 진행을 한다. 작년에도 경영학부 반이나 경영학부 전공의 같은 경우에도 총학생회 선거와 동일한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진행했다.

사과.정: 사과대 질의 있다. 재작년 총학생회 선거까지는 투표 안 함의 선택지가 있었는데 작년 총학생회 선거 때는 투표 안 함의 선택지가 없었어서 이번 선거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총: 기본적으로 저는 투표 안 함을 넣는 거 자체를 반대한다. 먼저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반대를 할 수 있는 선택권이 반대와 기권이 있는데, 또 투표 안 함까지 있으면 반대를 하는 선택권이 세 가지가 있는 것이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투표 안 함을 넣는 것은 옳지 못하다 라는 것이 제 의견인데 자세한 이야기는 또 차기 중운위 회의 때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통공.정: 마지막 질의가 있다. 그러면 총이랑 단과대랑 학부, 학과까지 같은 시스템으로 가면 그 추천서 등록 기간 이랑 선거 기간을 다 통일시켜야 하는 건지?

총: 네 맞다. 원래 선거 기간만 맞춰주시면 되긴 하나, 후보 추천서도 온라인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랑 같이 하면 더 편하실 것이다.

사과.정: 투표 안 함의 선택지에 대한 논의, 혹시 오늘 회의에서 진행하면 안 될지? 왜냐하면 투표 안 함 선택지도 하나의 이유를 골자로 해서 작년에 사과대는 총학생회 선거를 따로 했었어가지고, 만약에 투표 안 함의 선택지가 없다면 저희는 따로 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래서 투표 안 함의 선택지까지 오늘 결정을 할 수는 없

는지?

총: 투표 안 함의 이슈가 다른 중운위분들의 생각 정립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오늘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라는 판단이 있고, 다음 주 회의 때 중위분들께서 생각을 정리해 오시면 논의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이 되리라 생각이 된다.

경경.정: 경경대 혹시 선거 시행 세칙 관련해서 독방에 올려주실 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총: 선거 관리 시행 수칙은 제가 화면으로 띄워드려도 괜찮을지? 아니면 보내드릴지?

경경.정: 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문.정: 혹시 중운위 공지방에 보내주실 수 있는지?

총: 네, 중운위 공지방을 통해서 지금 올려드리도록 하겠다. 올려드렸다. 일정 관련해서 궁금하신 대표자분 계시는지?

경경.정: 경경대는 일정 관련해서 추가 의견 없다.

총: 네, 우선 일정 공고는 다음 주 회의에서 의결 진행해서 공고하도록 하겠다. 괜찮을지?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다. 추가의견 있으신 대표자분 계시는지? 네, 없으신 걸로 하고 논의 안건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다.

3. 2학기 예산자치제 실시

총: 2학기 예산 자치제 실시이다. 제가 오늘 공고를 만들려고 했는데 207관이 갑자기 정전이 되는 바람에 파일을 이제 다운받지 못했다. 그래서 내일 중으로 2학기 예산 자치제 시행 공고 파일을 작성해서 중운위분들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다. 공지방에 올려드렸다시피 이번 2학기 예산 자치제의 금액은 1,886,643원이 있고, 이 금액은 1학기 예산 자치제 이월 금액 플러스 2학기 총학생회의 배분 금액의 10%를 합산한 금액이다. 이 금액은 확대운영 위원회를 통해서 대표자분들의 의견을 구한 금액이고, 이 금액대로 2학기 예산 자치제 시행을 하도록 하겠다. 2학기 예산 자치제의 결산은 내년도 중운위가 결산을 담당할 예정이다. 네, 양해를 구하고 논의 안건 마치도록 하겠다. 혹시 질의나 추가 의견이 있으신 대표자분들은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네, 없으신 걸로 하고 시험 기간에 회의에 참석해 주신 중운위 대표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43차 회의 폐회하도록 하겠다. 다음 주 월요일이 25일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다.

기타안건

질의응답 및 추가안건 상정

사과.정: 잠시 기다려달라. 궁금한 점이 있다. 줌 시스템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줌 시스템이 약 한 일주일 전부터, 사실 기타 안건에서 말하려 했는데 기타 안건인지 몰라 가지고, 일주일 전부터 cau.ac.kr 계정으로 해도 40분 시간제한이 걸리는데, 이게 일부 계정에서는 업그레이드를 해주겠다는 창이 뜨면서 계속 회의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일부 계정은 40분이 넘으면 바로 회의가 종료된다. 그래서 학과, 학부 학생회에서 학생회 회의를 할 때 계속 문제를 겪고 있다고 왔는데, 총학생회의 모든 소통 창구로 다 메시지를 드렸는데, 답장이 없으시다고 저희에게 말을 하셔가지고 제가 한 번 더 시도를 해보고 다시 말해달라, 정 안 되면 제가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다 답장이 없으셔서 혹시 이거 관련해서 알아봐 주실 수 있는지?

총: 일단은 중앙대학교가 줌 라이선스 구매 연장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 근데 왜 일부 계정은 연장이 됐지는 잘 모르겠다. 이거는 한 번 확인을 해야겠다.

사과.정: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줌 라이선스 연장을 안 해서 40분 제한이 걸리는 건지?

총: 공식적인 답변은 아닌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다.

사과.정: 네 그러면 한번 알아봐 주시면, 다음 주에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공.정: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아까 제가 질문했는데, 선거 일정이란 추천인 명부 받는 기간을 맞춰야 한다. 그러면 그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

총: 우선 선거 비용이 들어가는 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선거 당일에 선거를 진행하는 업체 비용이 필요하고, 투표 비용이라고 한다. 투표 비용이 약 2천만 원 정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회칙에 근거해서 학교 본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그리고 후보 추천서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업체를 선정을 해서 링크를 배포 받아서 저희가 또 배포를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비용은 총학생회 이제 온라인 선거 비용으로 배정된 거 있다. 그걸로 충당할 예정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현수막 같은 경우에도 매년 총학생회의 선거 비용으로 그렇게 지출을 하고 있었다.

통공.정: 그러면 학과, 학부 선거 비용도 다 지원이 되는 것인지?

총: 당연히 지원을 해드린다. 학생 자치를 위해서.

통공.정: 그러면 그냥 저희는 따로 준비 안 하고 그냥 총에서 해주는 대로 묻어가면 되는..

총: 그거는 묻어가시면 안 되고, 중앙선관위에서 다 하셔야 한다.

통공.정: 그러니까 업체 선정을 공대 내에서 따로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었다.

총: 네, 그러니까 투표 업체 선정은 중운위 의결을 통해서 선정을 할 예정이고, 관례적으로 오토웹스라는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그렇게 진행을 해 왔다. 추천서도 작년에 어떤 업체를 사용을 했는지 한 번 알아보고 중운위분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통공.정: 알겠다.

총: 수고하셨습니다.

<폐회>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중앙운영위원회

선거 일정 공고	2021년 10월 26일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25조(선거일정)에 의거
공직 사퇴 마감	10월 29일 (23:00까지)	*중앙선관위와 학생회 집행부(국) 및 대표자 중 선거 운동을 하려는 자는 추천 시작 사흘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34조 가항에 의거) *사퇴하려는 자는 사퇴사유서 등 중앙선관위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34조 라항에 의거)
후보 추천 서 등록 및 수령	10월 31일 ~ 11월 1일 등록 및 수령 가능시간 10:00 ~ 18:00	*후보추천은 2학기 비대면 학사 관계로 온라인 서명을 통해 진행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링크를 통한 서명만을 인정한다. *온라인 서명 서식 제작을 위해 별도 후보추천서 등록 기간을 둔다. *후보추천서 등록용 제출 서류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서식과 분량은 제한하지 않는다. - 예비후보의 소속 단과대학 및 학과(부)명, 학번, 이름, 약력, 사진 ex) 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 18 최승혁
후보 추천 기간	추천서 링크 수령 이후 ~ 11월 8일 (18:00까지)	*본 회원(재학생)으로서 4차 학기 이상을 등록하였으며, 본 회원으로부터 4개 단과대 이상 총 5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단, 4개 단과대 별도로 각각 50명 이상을 받아야 하며, 선본별로 복수 추천이 가능)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31조에 의거)
후보 자등 록 마감	11월 8일 18:00	*입후보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구비하여 롤 미팅 30분 전까지 중앙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학 증명서, 성적 증명서 각 1부 2) 대표참관인, 선본원 명단과 재학 증명서(선본원은 재적 증명서 가능) 3) 출마 소견서, 후보 약력 소개서 4) 후보자사진(파일 형태 온라인 제출) 5) 선거공탁금 50만원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32조에 의거) *입후보하려는 자는 롤미팅 이전에 반드시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확인증을 인권센터로부터 발급받아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중앙대 학생회칙 완본 제6조에 의거) *31조 다항에 의한 후보추천서는 중앙선관위와 관리하므로 제출하지 아니한다.
후보 자 롤미 팅	11월 8일 (18:30 ~)	*중앙선관위는 등록마감 후 선거시행세칙 31조에 의거 입후보자의 자격심사를 해야 한다. 이에 어긋날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입후보자가 32조 가항의 구비서류를 등록마감 시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등록을 거부해야 한다.(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33조에 의거)
선거 운동 기간	11월 10일 ~ 11월 22일 (24:00까지) [11월 19일: 합동 유세 및 합동 공청회]	*롤 미팅 이후 선거운동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는 선거운동 준비기간으로 지정한다.(단, 선거운동준비가 사전에 이루어졌더라도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시행할 수 없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중앙선관위가 정한다. 선거운동기간 이전의 사전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경고 조치한다. 단, 후보자 추천, 설문조사, 후보자 추대 모임 등은 사전 선거 운동으로 규제하지 않는다.(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26조 나항, 29조에 의거) *합동유세는 중앙선관위가 정한 날짜에 따른다.(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38조에 의거) *합동 공청회는 중앙선관위의 책임 하에 시행된다.(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39조에 의거)
투표 기간	11월 23일 ~ 11월 24일 (연장투표 : 11월 25일)	*선거일은 중앙운영위에서 결정한다.(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25조 나항에 의거) *투표소에서는 투표행위 이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52조 나항에 의거) *전체 투표율이 50%가 안 될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단, 선관위와 선본의 합의 하에 1일에 한하여 연장투표를 할 수 있다. 또한 연장 투표 시, 투표율이 50%가 안 될 경우 중앙선관위의 논의결정으로 재선거 여부를 결정한다.(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58조에 의거)
당선 공고	개표 직후	*개표는 연장투표가 실시될 경우 일정이 미뤄질 수 있다. *개표결과가 최종 확인된 경우에는 중앙선관위원장(혹은 부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당선공고에 관련한 이의 신청을 받고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동의를 얻어 당선공고를 한다.(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62조에 의거)
이의 제기 기간	당선공고 시 점 ~ 24시간	*당선공고 이후 24시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62조 나항에 의거)
당선 확정 공고	당선공고 24시간 후	*24시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당선확정공고를 한다.(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62조 마항에 의거)